

Magazine

숲

My
City

| 숲은 지속가능한 도시다 |

vol.24 July+August 2018



산림청은 도시를 더 아름답게 하는 힘,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곧 숲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숲은 공해를 빼아들이고, 자연재해를 막아주며,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당신이 사는 도시는 어떤 곳인가요?
숲이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힘이라면
당신의 마음에도 그 숲이 꼭 자리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에 사는 당신에게 숲이 더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 호 <Magazine 숲>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산림청



My Forest

당신에게는 어떤 숲이 있나요? 우리는 저마다 커다란 숲 하나씩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의 숲이라면, 그 숲을 건강하게 가꾸고 키우는 일이 곧 삶을 잘 꾸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산림청은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 산림청의 마음도 그것과 같습니다. 숲이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만의 숲을 갖는 마법 같은 순간을 2018년 〈Magazine 숲〉이 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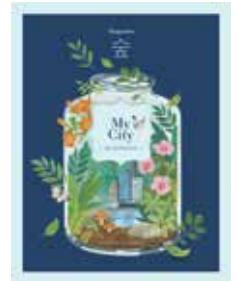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터를 잡고 살아갑니다. 도시에서는 편리와 유행을 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과 같은 미래의 일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육과 의료, 문화 혜택의 폭도 크지요. 도시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아름답습니다. 물론 도시는 양면적입니다. 전 세계 면적의 3%만을 차지하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75%를 소비하고 전체 온실가스의 80%를 내뿜습니다. 범죄와 빈곤, 소득 불평등도 이곳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 노출되면 그 피해 역시

My City

| 숲은 지속가능한 도시다 |

걷을 수 없습니다. 산림청은 도시를 더 아름답게 하는 힘,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곧 숲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숲은 공해를 뺏어들이고, 자연재해를 막아주며,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도시인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숲이 있는 것만으로 아이들의 폭력성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니, 숲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팬한 기본만은 아니랍니다. 당신이 사는 도시는 어떤 곳 인가요? 숲이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힘이라면 당신의 마음에도 그 숲이 꼭 자리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에 사는 당신에게 숲이 더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 호 〈Magazine 숲〉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미세먼지를 거르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은 도시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 도시인들이 가볍게 찾아갈 수 있는 피서지도 되어주지요. 이번 호 〈Magazine 숲〉 표지는 각종 공해로부터 도시를 지켜주는 도시 숲의 역할과 다양한 도시숲 조성사업을 펼치는 산림청의 노력을 담아내기 위해 유리병에 담긴 도시의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Cover Story

미세먼지를 거르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은 도시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 도시인들이 가볍게 찾아갈 수 있는 피서지도 되어주지요. 이번 호 〈Magazine 숲〉 표지는 각종 공해로부터 도시를 지켜주는 도시 숲의 역할과 다양한 도시숲 조성사업을 펼치는 산림청의 노력을 담아내기 위해 유리병에 담긴 도시의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vol.24 July+August 2018

Contents

발행일 2018년 7월 10일
발행 산림청
기획 산림청 대변인실
magazinesup@korea.kr
편집·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사진 스튜디오 KENN
표지 일러스트 전유리

<Magazine 숲>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산림 문화 전문 매거진입니다.
<Magazine 숲>은 한국 간행물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Magazine 숲>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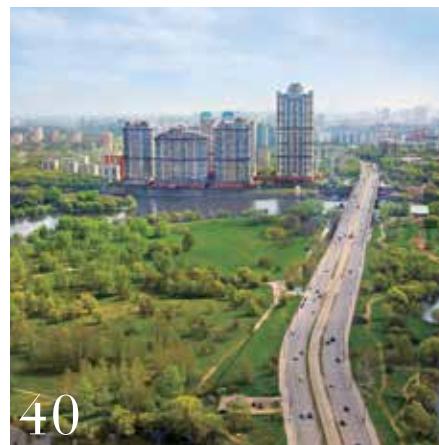
f 페이스북 @forestkorea
i 인스타그램 @forest_korea
b 블로그 http://blog.daum.net/kfs4079
t 트위터 @forest_news



08



32



40

My City

숲은 지속가능한 도시다

06
Special Theme 1
어른을 위한 동화
숲을 품은 도시, 꿈을 꾸는 도시

08
Special Theme 2
당신의 숲
나무 한 그루마다
최선을 다하는 나무주치의
– 나무의사 이승제

14
Special Theme 3
즐겨찾기
도심 속, 자연과 가까이 하는 행복
– 도시숲으로 가자

18
Special Theme 4
산림살롱
도시에 네가 있어 다행이야!
– 미세먼지 줄이는 도시숲

20
비밀의 정원
400년 벚장 품 원시 난대림의 유토피아
– 전남 고흥 힐링파크 쑥쑥쑥

24
산을 기록한 사람
푸르른 희망이여, 꽃 같은 평화여 오라
– 신장식 화백

28
2막 1장
산이 품은 문화와 가치를 발견하다
– 왕산약초체험마을 최무열 대표

32
다정한 밥상
몸의 기운을 보하는 담백한 맛
– 구기자를 더한 여름 보양식

36
함께 지키는 숲
산사태, 과학적인 산림 관리로 막는다!
– 산사태 피해 줄이기

40
자연주의 트렌드
도시인을 숨 쉬게 하는 숲의 힘
– 세계의 도시숲을 만나다

44
그린 인큐베이터
나무 안에서 함께 꾸는 꿈
– 인트리협동조합

48
시네마숲
산에서 길을 찾은 청춘
– 영화 <우드집>

52
독자 메시지
독자 의견을 보내주세요.

www.forest.go.kr
<Magazine 숲>의 앱 매거진을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Special Theme 1

**숲을 품은 도시
꿈을 꾸는 도시**

숲 속 마을에 호기심 많은 다람쥐가 살았어요. 어느 날 다람쥐는 숲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과 만나고 싶었어요. 식량으로 삼을 도토리 몇 알을 품고 여행을 떠나기로 했죠. 산 넘고 물 건너 도착한 첫 번째 여행지는 어느 화려한 도시였어요. 다람쥐의 눈은 휘둥그레졌어요! 매끈하게 뻗은 빌딩, 쌩쌩 달리는 자동차, 밤이면 형형색색으로 거리를 밝히는 네온사인까지, 다람쥐는 처음 보는 멋진 풍경에 취해 정신이 없었답니다. 신나게 도시 관광을 즐긴 다람쥐는 여독을 풀기 위해 몸을 뉘일 나무를 찾았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도시에는 작은 나무 한 그루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화려한 도시에 살면서 어둡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사람들의 얼굴은 그 때문일까요? 다람쥐는 품고 있던 도토리를 큰 맘 먹고 도시에 내어주었어요. 땅을 파고 도토리를 심었지요. 며칠 후, 도토리는 쑥을 틔웠고 금세 어여쁜 도토리나무로 자라났어요. 도시 사람들은 웅성웅성 나무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도시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금세 그늘을 드리우고 청량한 바람을 가져다주었지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환한 빛이 떠올랐어요. 다람쥐는 이 도시에 나무 한 그루가 아닌 꿈 한 그루를 심었나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빌딩 앞에 나무를 가꿨고, 조금씩 행복해졌어요. 숲을 품은 도시는 더 아름다워졌고요. 이들은 다람쥐의 선물을 눈치채기는 했을까요? 다람쥐는 의기양양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 발길을 옮겼답니다.

Special Theme 2

나무 한 그루마다
최선을 다하는 나무주치의

나무의사

이
승
제



사람이 아프면 의사를 찾고 동물이 아프면 수의사에게 데려가듯이, 나무에게도 의사가 있다. 나무 역시 살아있는 생명체이기에 아픈 나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가가 있는 것이다. 서울나무병원 원장 이자 (사)한국나무병원협회 협회장인 이승제는 지난 1985년부터 나무의사의 길을 걸어왔다. 그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최선을 다하다보니 여기까지 왔다는 그는 나무와 참 많이도 닮아있었다.

글·편집실 — 사진: 김병구





나무의사 이승제

신구대학교 환경조경과를 졸업하고 나무종합병원에 입사했다. 이후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환경조경학 석사를 마친 뒤 상명대학교 환경자원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경대학교, 신구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에서 이론과 실무가 어우러진 강의를 통해 나무의사 배출에 힘썼다. 나무의사 중 대형목 이식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수목보호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조경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나무의사란

말 못하는 나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아픈 나무를 찾아 전국 곳곳을 다니는 일이 솔직히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나무가 건강하고 숲이 건강해야 사람 역시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30년 넘게 걸어 온 ‘나무의사’의 길

‘최선을 다하자’. 이는 이승제 나무의사가 쑥스러운 듯 털어놓은 인생의 좌우명이다. 사실 요즘 같이 화려하고 복잡한 세상에 참 멎없이 맛있게만 느껴지는 구절 아닌가. 하지만 그가 ‘순간순간,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가끔 마음처럼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노력해야죠’라 덧붙이는 순간, 어쩐지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의 우직한 목소리에서 30년 넘게 ‘나무의사’란 길을 꾸준히 성실하게 걸어온 그의 인생이 묻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나무 치료를 가르치는 강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게 1982년입니다. 신구대학교에서 우리나라 1호 나무의사인 나무종합병원 강전유 원장님을 초빙해 나무 치료 과목을 개설했는데 제가 그 첫 강의를 들은 학생 중 한 명이었어요. 강전유 원장님 강의를 듣는데, ‘아, 이 길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란 생각이 강렬했습니다.”

당시 신구대학교 환경조경과 학생이었던 이승제 나무의사는 강전유 원장을 졸졸 따라다녔노라고 회상한다. 나무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은 그는 강전유 원장의 나무종합병원에 찾아가 세차를 하고 강전유 원장의 구두도 닦았다. 처음엔 ‘인력충원 예정이 없다고’ 하던 강전유 원장도 청년 이승제의 끈기에 반해 그를 받아들였다. 1985년, 마침내 그는 나무의사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강전유 원장님께서는 천연기념물이나 큰 관목들의 외과수술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곁에서 많이 배웠고요. 나무종합병원에 입사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제가 강 원장님께 병충해를 방제하고 관리하는 방제팀을 만들자고 건의를 드렸어요. 강 원장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저는 방제팀을 구성해 서울시와 같은 기관이나 우리를 찾는 일반 가정집 곳곳을 방문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바쁘게 일했지만 틈틈이 책도 읽으며 참 열심히 살았어요.”

1 — 나무병원은 수목의 이상 증세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방제충을 연구하고 관리하는 곳이다.

2 — 말 못하는 나무를 치료하는 나무의사에게 인내심과 세밀함, 나무에 대한 깊은 사랑은 꼭 필요 한 덕목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숲을 위하여

1991년, 이승제 나무의사는 독립해 서울나무병원을 열었다. 그동안 그는 주요 관공서와 기업을 비롯해 여러 곳의 수목을 관리·치료하며, 신구대와 한경대, 상명대

등에서 후학을 양성해왔다. 전국에서 일일이 해야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나무를 만났지만 이승제 나무의사에게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

“15년 전 쯤인가 부산의 어느 마을에서 당산목을 이식 한 적이 있습니다. 의뢰를 받고 마을에 가보니 당산목이 둘 틈에 자리해 있었어요. 뿌리 손상을 최대한 줄이며 이식하는 게 중요한데, 뿌리가 둘 틈 깊숙이 뻗어 있으니 일일이 둘을 깨야겠죠. 그렇게 힘들게 나무를 캐서 가문에 옮겼는데 썩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가 봄이었는데 직원 한 명을 계속 상주시키며 나무를 보살폈어요. 다들 나무가 죽었다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 해 7월, 새 뿌리가 돌아났습니다. 그때의 감격스런 마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는 나무의사란 말 못하는 나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아픈 나무를 찾아 전국 곳곳을 다니는 일이 솔직히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나무가 건강하고 숲이 건강해야 사람 역시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사는 도시에 숲과 나무가 없다면 얼마나 식막할까요? 그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그동안 가로수나 공원수를 어떻게 관리해왔는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토양이에요. 특히 도심의 가로수는 염화칼슘 등의 영향으로 알칼리성으로 변한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건강하지 못하죠.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선 처음 나무를 심을 때, 이 나무가 햇빛을 좋아하는지, 건조한 토양을 좋아하는지 등 나무의 특성을 먼저 파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목의 생리를 모르는 이들이 나무를 심고 관리해왔어요. 이제라도 산림청에서 나무의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니 참 다행이지만,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아비타>엔 ‘I See You’란 나비족의 인사법이 등장한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란 간단한 말 속에 ‘나는 당신의 영혼을 봅니다’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이승제 나무의사는 나무를 보고, 나무의 이야기를 듣는다. 아마 나무 역시 아픈 자신을 바라봐주는 그를 보며 안도하지 않을까. ‘이제 내 주치의가 있으니 걱정 없겠네’하며 말이다. 숲

Question & Answer

나무의사가 되기 위한 Q&A

Q 나무의사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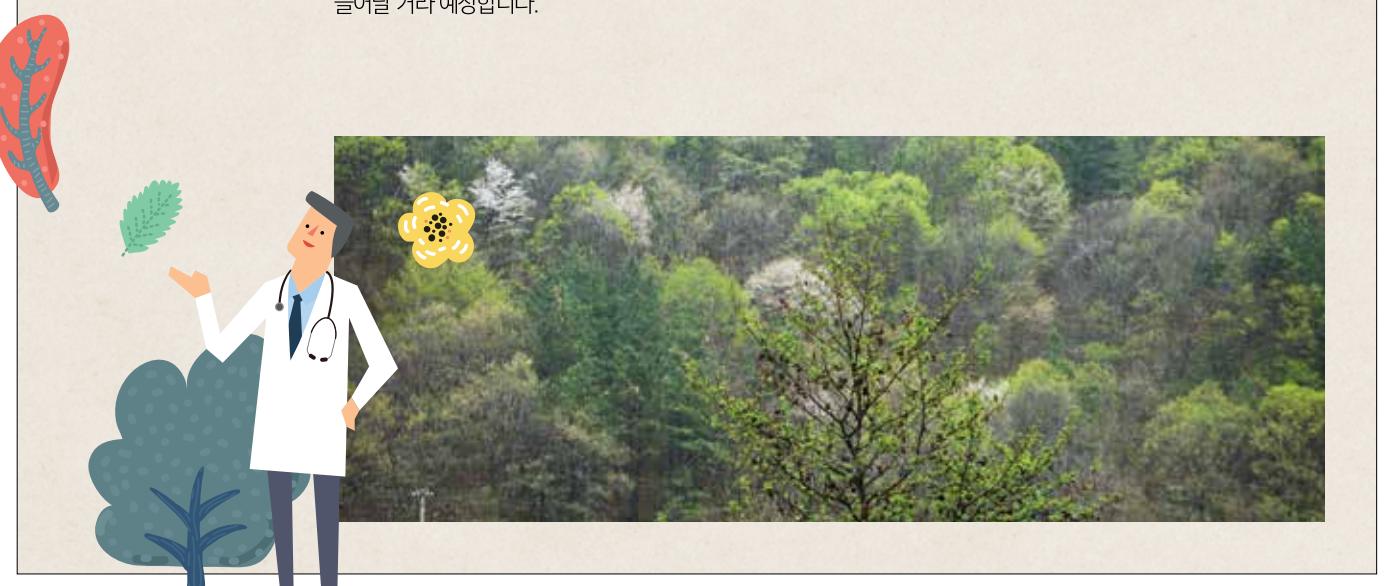
A 나무의 특성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므로 각종 병과 해충에 감염될 수 있고, 월동 준비도 해야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해요. 또한 나무가 자라는 기본적인 환경은 토양입니다. 토양이 나쁘면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없으므로 토양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아야 하죠. 개인적으로 나무의사는 평생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나무 수종이 다양해지면서 나무 관리에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이 도입되고 있어요. 때문에 제가 언급한 것 외에도 꾸준히 관련 분야의 책을 읽고 탐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Q 나무의사가 되기 위한 덕목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나무는 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픈 나무를 살피면 잎사귀 끝부터 토양까지 삶살이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나무의사에게 인내심과 세밀함은 필수 덕목입니다. 또 나무의사는 환자를 찾아가야 하는 직업입니다. 전국 곳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만큼 체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무와 숲,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은 당연한 거겠죠.

Q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선진국으로 갈수록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서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직 '나무의사'란 직업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않지만 앞으로 나무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산업과 학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나무의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늘어날 거라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6월 28일부터 산림청에서 나무의사 자격 제도를 신설한 것도 참 반가운 일입니다. 국가자격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게 되면 신규 일자리도 늘어날 거라 예상합니다.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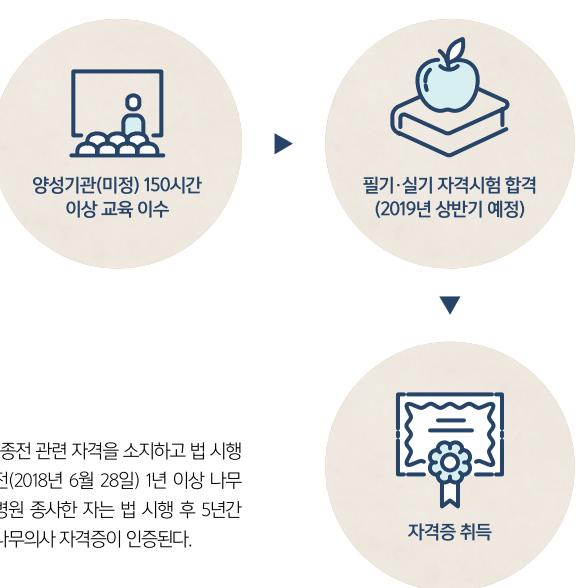
새로운 나무의사 자격증 제도가 궁금하다면?



나무의사

나무의사는 나무의 병충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동안은 비전문가인 실내 소독업체 등에서 아파트단지, 학교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 수목관리를 주로 해왔으며 농약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산림청은 산림자원 보호와 국민안전을 위해 2016년 12월 27일 나무의사 관련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개정안을 공포하고 나무의사 제도를 신설했다.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수목을 진단하고 관리 하려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취득 과정



*종전 관련 자격을 소지하고 법 시행 전(2018년 6월 28일) 1년 이상 나무 병원 종사한자는 법 시행 후 5년간 나무의사 자격증이 인정된다.

자격시험 과목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산림토양학, 수목관리학 등 5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며, 실기시험은 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에 대한 논술형, 수목 및 병충해의 동정·약제 처리와 외과수술을 다루는 실기형으로 이뤄진다.

자격시험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 종학교)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산업기사, 조경기사·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
 - 나.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처방·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

문의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35



Special Theme 3

도심 속,
자연과 가까이 하는 행복

도시숲으로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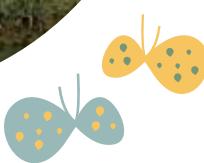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맑고 쾌적한 공기에 대한 갈증도 더해지고 있다. 때문에 최근 숲세권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생활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숲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있는 추세. 숲의 다양한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산림청은 도시숲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가까운 도시숲을 찾아 마음껏 숨 쉬는 여유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 전국 각지의 특색있는 도시숲 몇 곳을 소개한다. 글.편집실 — 사진. 김병구,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춘천시청 관광정책과

1

시민과 함께 자라는 서울의 하파, 서울숲

2005년 6월 18일 정수장, 레미콘공장, 골프장이 있던 곳이 35만 평의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원으로 태어났다. 4,000여 명의 시민과 70개 기업 및 단체가 기금을 모아 만든 최초의 시민의 숲이다. 체험학습원, 생태숲, 습지생태원, 문화예술공원 등 네 가지의 특색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 숲은 한강과 맞닿아 있어 온전한 자연의 어루만짐을 경험할 수 있다. 강인 한 생명력을 고스란히 보듬고 있어 진정한 자연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생태숲을 비롯해 식물들 사이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곤충과 나비를 볼 수 있는 곤충식물원과 나비정원, 시민들이 저마다의 테마를 가지고 직접 가꾸는 참여형 정원인 오소정원 등 숲의 초대에 응해 천천히 둘러볼 만한 공간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서울숲은 자유로운 레저를 즐겨도 좋고 가벼운 피크닉 삼아나들이를 떠나기에도 손색이 없는 전형적인 도시숲의 모습을 갖추고 시민과 함께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위치 :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273



2

물과 숲의 어울림, 춘천 공지천 녹색쌈지숲

춘천은 감성적인 이미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춘천하면 '물'이 먼저 떠오르는데 물과 어울려 아늑한 숲을 조성해 춘천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여행객들에게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은 공간이 있다. 바로 공지천에 있는 녹색쌈지숲이다. 공지천변을 따라 대규모로 느티나무 등을 식재해 가볍게 산책하며 여유로운 마음으로 유유히 흐르는 공지천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공지천 내 자트리 땅을 활용한 녹색쌈지숲은 산책로를 중심으로 각종 나무와 꽃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자연과 더불어 여러 레저활동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녹색쌈지숲은 도심 가까이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자리하고 있어 누구나 숲이 주는 여유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을 더한다. 춘천 공지천 녹색쌈지숲은 녹색도시 우수 사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이디오피아길 25



3

정원의 도시에 둑지를 틀 시민의 벗, 순천 조례호수 도시숲

도시숲의 장점은 시민들이 더불어 호흡할 수 있고, 숲을 친구처럼 가까이 두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호수 도시숲은 매력 만점이다. 총 16ha 규모의 조례호수 도시숲은 순천 도심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정원의 도시로 유명한 순천 시민들이 허물없는 벗과 사귀듯 일상을 함께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이 곳은 70년 이상 된 소나무 숲과 참나무 숲을 보존하고 있다. 수변길을 따라 왕벚나무 등 다양한 테마 쉼터와 문화예술공연을 위한 수변무대, 오픈광장, 전망대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췄다. 호수를 끼고 있는 수려한 경관을 잘 활용해 숲과 호수의 매력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또한 조례호수 도시숲과 연계해 조성되어 있는 2.5km에 달하는 연향로 웨일링 가로수길은 신설 철도가 개설되면서 버려진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 편백, 구실잣밤 등 난대 특색수종을 조화롭게 심고 자전거길 등을 설치해 시민들의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다.

위치 : 전남 순천시 왕지2길 20



4

쓰레기 매립장에 뿌리 내린 건강 숲, 진주 초전공원 도시숲

진주 초전공원 도시숲은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해 조성한 숲으로 남강과 산 악녹지를 연결하는 비오톱 네트워크를 구축한 곳이기도 하다. '생명과 생태'라는 주제로 조성된 초전공원 도시숲에는 생명의 연못, 사계절의 정원, 메타세콰이어 길, 단풍나무 숲길 등이 있다. 특히 쪽쪽 뻗은 메타세콰이어 길은 고요한 숲 속을 산책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어 평화로운 일상을 선사한다. 이곳의 자랑은 메타세콰이어길뿐만 아니라 교목 25종 1,315주, 눈행나무 등 관목 30종 31,695주, 맥문동 등 초화류 15종 45,000본을 식재해 도심이지만 절은 숲이 우거진 숲의 매력을 제대로 맛볼 수 있다. 공간의 재활용이 인상적인 이 곳은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활용한 약 8,000m³ 규모의 생명의 연못도 자리해 있다. 공원의 주차장 역시 생태블럭 등 자연친화적인 포장재를 활용해 만들었다.

위치 : 경남 진주시 초전동 일대



정부대전청사 도시숲 감성체험 프로그램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 내 도시숲을 이용해 유아, 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감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숲 해설을 통해 숲을 알아보고 생태공예 체험 등 다양한 산림교육 및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장소 : 정부대전청사 숲사랑 체험관(1동 1층)
대상 : 유치원, 초·중·고교생 및 성인
운영자 : 산림청 소속 전문 숲해설가
문의 : 042-481-4264



제28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산림청은 전국 생활권 주변에 무궁화동산을 만들고 무궁화 신品种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다양한 무궁화 문화행사도 개최하는데 오는 8월에 열리는 '제28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가 대표적이다. 무궁화 화분 나눠주기, 무궁화 차 시음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중앙행사
일시 : 8월 10~15일
장소 : 서울시 광화문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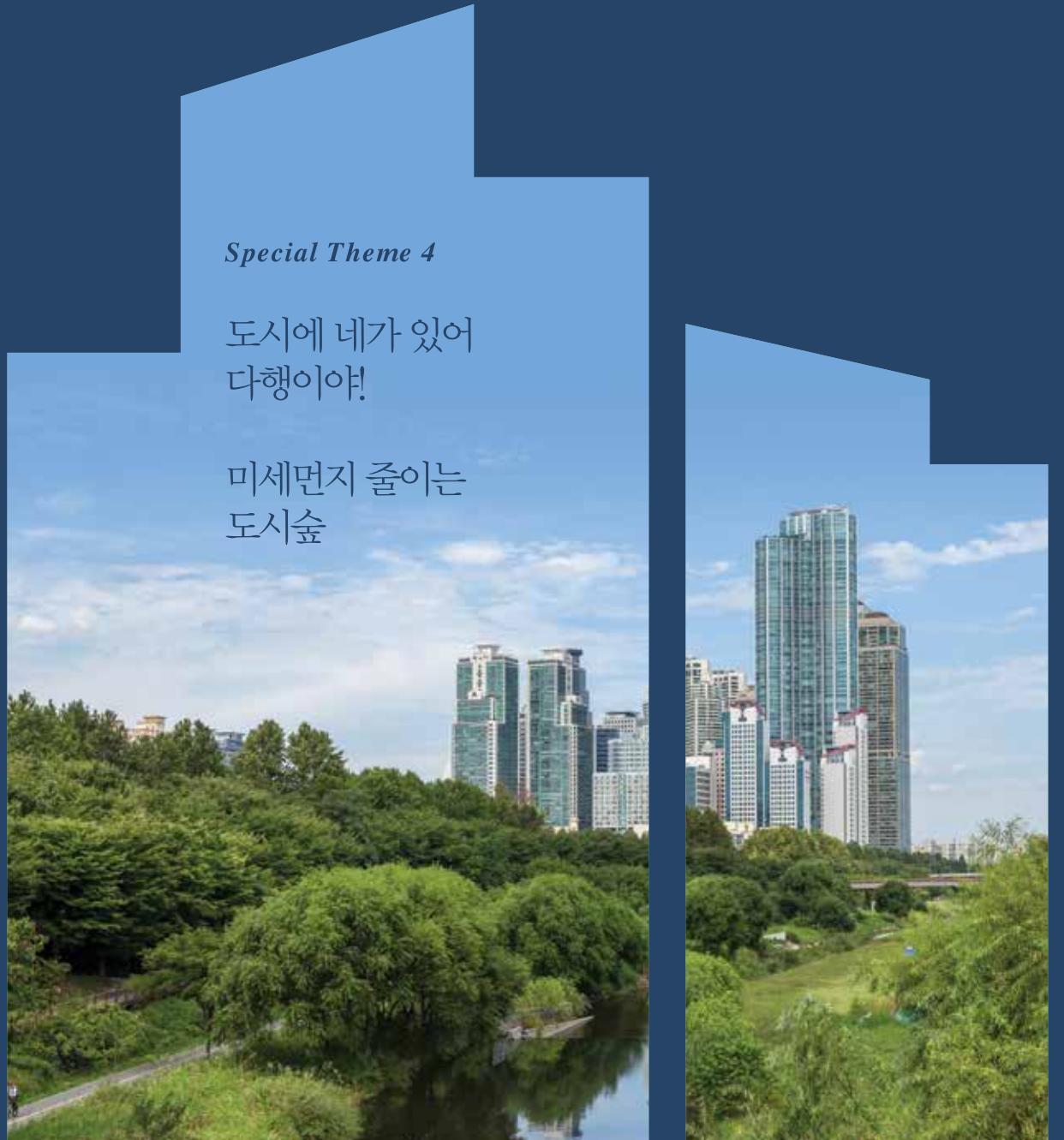
전라북도 완주군
일시 : 8월 10~12일
장소 : 완주군 고산면 고산문화공원

경기도 수원시
일시 : 8월 3~5일
장소 : 수원시 만석공원

세종특별자치시
일시 : 8월 15~16일
장소 : 정부세종간판센터

강원도 홍천군
일시 : 7월 27~29일
장소 : 홍천군 무궁화수목원





도심 미세먼지 문제가 해마다 심각하다. 이를 해결할 좋은 방안은 없을까?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시숲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낮출 뿐만 아니라 여름 한낮 기온을 낮춰 도시열섬 완화효과를 갖고 있음을 밝혀낸 바 있다. 미세먼지와 더위를 잡는 도시숲의 특별한 이야기를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 연구센터 박찬열 박사에게 들어본다. 글. 박찬열(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센터)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을 기준
으로 전국 및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는 $26\mu\text{g}/\text{m}^3$. WHO 권고기준인 $10\mu\text{g}/\text{m}^3$
는 물론 도쿄 $13.8\mu\text{g}/\text{m}^3$, 런던 $11\mu\text{g}/\text{m}^3$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
다. 이런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책으로 도시숲의 기능이 주목
받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시숲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도심에 비해 낮음을 확인했다. 도시숲은 도심의 미
세먼지를 25.6%, 초미세먼지를 40.9% 낮춘다. 그 이유는 나무의 생김새에 있다. 나뭇
잎, 나뭇가지, 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잡하고 미세한 구조를 갖고 있다. 잎의 털과
나뭇가지의 굴곡, 줄기의 홈 등이 트랩과도 같은 구조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숲에서는
미세먼지보다 초미세먼지가 더 잘 잡힌다. 한편 숲은 폭염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최근
연평균 폭염 환자 수는 약 15,000여 명으로 매년 평균 1,100명 정도 증가하고 있다. 국립
산림과학원이 열화상카메라로 가로수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통섬 나무 그늘에서 평
균 4.5°C , 가로수 나무 그늘에서 평균 $2.3\sim2.7^\circ\text{C}$ 의 온도저감 효과를 보였다. 나무의 증
산(蒸散, 식물이 뿌리를 통해 흡수한 물을 식물 잎 뒷면의 기공을 통해 대기로 내보내는
과정)작용 덕분이다. 나무는 증산작용을 활발히 해 기온을 낮추고, 직사광선을 직접 차
단한다. 더운 여름날, 물 한 바가지를 콘크리트 바닥에 뿌리면 증기가 되면서 주변이 시
원해지는 원리와 비슷하다. 게다가 한여름 나무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자면 개운하다고
느끼는데, 이는 나무에서 나오는 알파피넨이라는 물질과 관련이 있다. 최근 자자체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을 위해 차광막을 제공하는데, 이는 그늘을 준다는 점에
서 나무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나무처럼 증산효과를 일으키거나 상쾌함을 주는 물질
을 공급하지 못한다. 이러한 나무를 모아 큰 숲을 조성하면 미세먼지와 폭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올해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시화공단 완충숲 조성 후 주거
단지의 초미세먼지가 산업단지 보다 17%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작년에 발표한, 여의도숲
조성 전과 후의 표면온도 변화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1996년 여의도숲이 조성되기 전
의 광장은 주변보다 표면온도가 평균 2.5°C 높았으나, 2015년 여의도숲이 조성된 후의
표면온도는 오히려 주변
보다 평균 0.9°C 낮았다. 이처럼
잘 조성된 대규모 도시숲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열섬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대책이다. 또한 도시숲은 생활권에서 미세먼지 체감농도를 줄여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또한 도시숲의 나무 그늘은 시민들의 더위를 식혀주는 천연에어컨 역할도 가능하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로수, 교통섬 등 더 많은 도시숲 조성이 필요하다. 가로수 밑에 관목이나 초본을 심는 것만으로도 맨땅보다는 나무그늘 효과를 몇 배 높일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가로숲 터널숲이나 2열·3열 가로수, 복층 가로수를 조성해 기존 가로수를 보완·확대하는 적극적인 도시숲 정책추진이 필요하겠다. 무엇보다 가로수가 도시계획의 부속물이 아니라, 미세먼지와 폭염의 피해를 줄이는 도시의 허파와 같은 기반시설이라는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숲

도시숲

도시와 마을 등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에 영향을 받는 공간 내에서 자라는 숲 또는 공원녹지 등을 이르는 말이다. 길거리의 가로수나 공원의 나무들을 모두 포함한다. 도시숲은 도심의 미세먼지를 거르고, 증산작용을 통해 도시열섬 현상을 친환경적으로 줄여준다.

400년 빗장 푼 원시 난대림의 유토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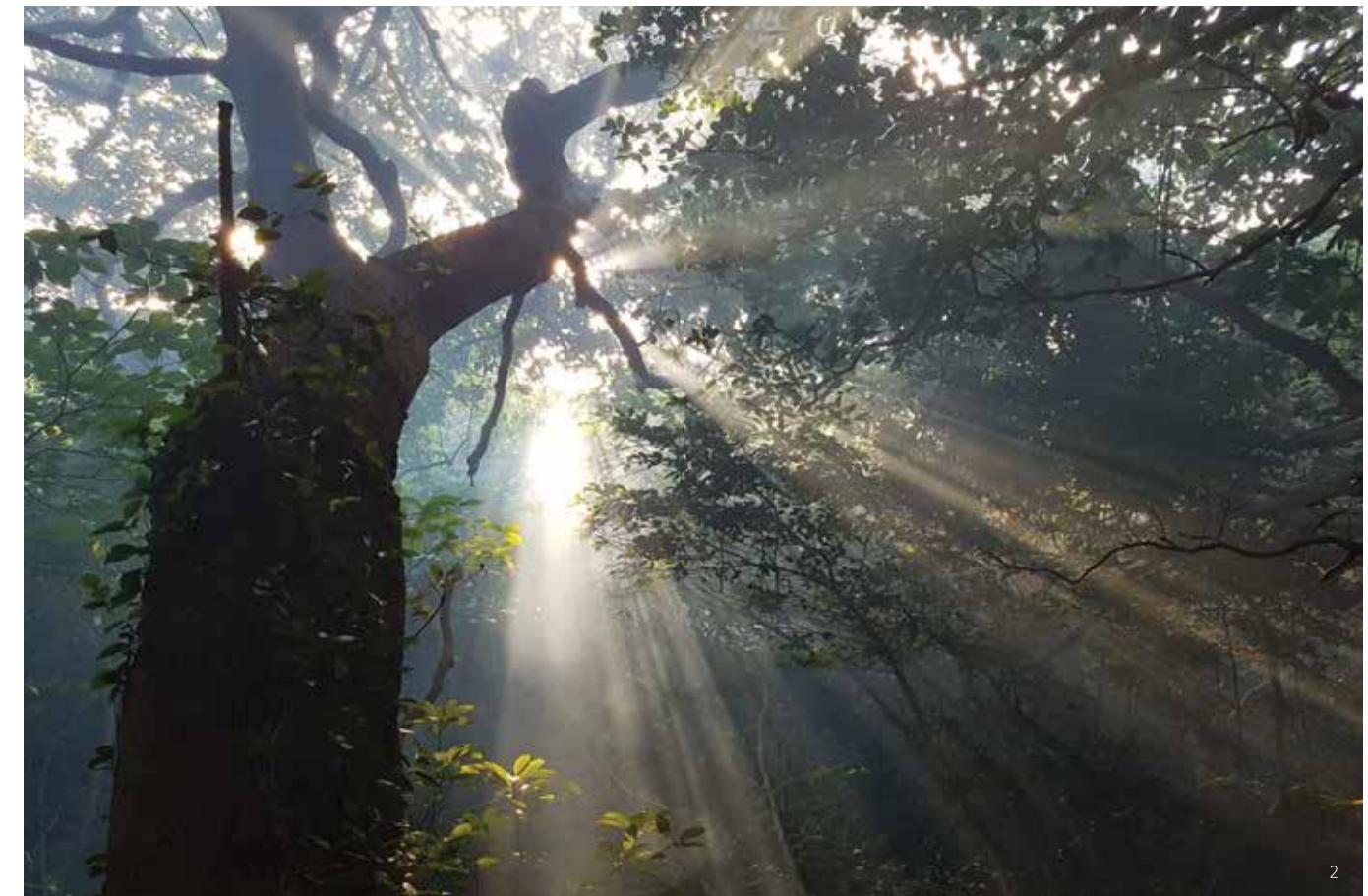
전남 고흥 힐링파크 쑥섬쑥섬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사람들은 다양한 관계를 견고하게 하고 그를 통해 더 잘 살아가고자 한다.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과 자연이다.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고민하며 작은 섬을 아름다운 자태의 꽃과 나무가 가득한 비밀의 정원으로 일군 곳이 있다. 바로 전남 1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된 '힐링파크 쑥섬쑥섬'이다. 고즈넉한 자연의 숨결을 온전히 호흡하며 거니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완성되는 곳, 힐링파크 쑥섬쑥섬으로 떠나보자.

글. 편집실 — 사진협조. 힐링파크 쑥섬쑥섬



1



2

힐링파크 쑥섬쑥섬

주소 : 전남 고흥군 봉래면
애도길 43
문의 : 010-8672-9222
<http://ssookseom.com/>
<http://blog.naver.com/ssookseom>

1 — 별모양으로 디자인 된 '별정원'의 모습. 400종이 넘는 꽃들을 만날 수 있다.

2 — 남해안 일부에서만 볼 수 있는 육박 나무, 구실잣밤나무 등이 우거진 난대 수종원시립

애도(艾島), 풍경에 매혹되는 애도(愛島)

사람의 간절한 바람은 기적에 가까운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외지인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던 작은 섬을 하나님의 커다란 정원으로 바꾼 애도에서 그런 기적을 만날 수 있다. 섬에서 나오는 숙이 인진쑥보다 좋다고 해서 쑥 애(艾)자를 쓰는 애도. 쑥섬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전남 고흥군 나로도향에서 바로 5분 정도 이동하면 닿는다. 난대원시립으로 이뤄진 당숲이 풍요롭게 우거져 있다. 외부인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것은 물론 애도에 사는 주민들도 반 정도는 안 들어가 봤을 정도로 신성시하는 숲이다. 이 비밀스러운 곳을 '힐링파크 쑥섬쑥섬'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개방됐으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섬으로 거듭났다.

일구어낸 주인공은 바로 김상현·고채훈 부부다. 애도를 가꿔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한 이래 10년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애도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일하며 섬을 일군 것이 8년. 물론 그동안 꽃보다 풀이 더 많이 자라났고, 침녕쿨에 점령당했으며, 장미를 삽목한다는 걸 찔레를 삽목하기도 일쑤. 포트에 모종을 만들어야 하는 작물을 직피하는 등 수도 없는 시행착오를 반복했다. 하지만 애도는 결국 계절에 따라 다양한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하는 천상의 화원으로 탄생했다. 덕분에 이곳 숲은 400년 만에 외부인에게 개방됐으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섬으로 거듭났다. 2017년엔 전남 1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바다를 품고 생명을 꽂피우는 별정원

바다 위에 비밀의 정원이 오롯이 자리 잡고 있는 힐링파크 쑥섬쑥섬에는 섬을 트레킹하며 비경을 돌아볼 수 있는 코스가 조성되어 있다. 선착장에서 시작해 헐떡길, 원시 난대림인 당숲, 환희의 언덕, 몬당길, 별정원, 야생화정원, 수국길, 난대림 테마정원을 돌아 사랑의 돌담길, 여자산 포바위와 남자산 포바위, 신선대, 성화 등대, 동백길을 지나 다시 선착장에 돌아오는 코스다. 총 3km 구간으로 1시간 30분 안팎이면 돌아볼 수 있다. 그만큼 작은 섬이지만 코스 곳곳에서 군락을 이룬 여러 종류의 꽃들과 마주치고, 숨을 고르며 눈을 돌리면 망망대해가 펼쳐지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어 매력을 더한다.

이곳 탐방로의 특징은 아름다운 섬의 자연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으며 애도에 얹힌 옛이야기를 따라 걸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인의 나체와 풍만한 가슴을 가진 후백나무, 태풍 매미에 쓰러졌지만 결코 죽지 않은 육박나무, 밭 가운데 있는 바위에 뿌리를 박고 살아남은 느릅나무, 저절로 수형이 부채꼴로 예쁘게 나온 다정큼나무, 신비로운 자태를 자랑하는 신선대의 소나무 등은 힐링파크 쑥섬쑥섬에서만 마주할 수 있는 비경이다. 그 중 백마는 단연 별정원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우주발사체 나로호를 쏘아올린 고흥군의 상징인 우주와 별을 모티브로 한 별정원은 400여 종의 꽃들이 계절마다 피고 지며 절정의 아름다움을 과시한다. 각종 꽃의 향연이 펼쳐지는 별정원에서는 봄이면 수선화, 돌갓꽃, 리나리아, 꽃잔디, 툴립, 금계국, 금어초, 개양귀비, 랙스퍼, 이베리스 등이 앞 다투어 피어난다. 여름에는 철포나리, 천일홍, 디기탈리스, 송엽국, 메리골드, 비비추, 맥문동, 베르가못, 참나리, 갯패랭이, 백합, 수국 등이 만개한다. 가을에도 화려함을 잊지 않는다. 에키네시아, 지니아, 국화, 한련화, 리나리아, 상시화 등의 꽃과 라벤더와 바질 등의 허브도 절정을 이룬다. 덕분에 계절마다 화사하게 피어난 꽃밭에서 바다를 조망하며 온전한 치유의 시간을 선물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017년 아름다운 숲 전국 대회에서 상을 받은 난대원시림에서는 일반 식물원에서는 볼 수 없는 200~300년 된 원시림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감탄을 자아낸다.

힐링파크 쑥섬쑥섬은 자연보존을 위해 입도 인원을 조절하고 있다. 참고로 배편은 난로도항에서 하루 5번 정기운항하고 있다. 이곳을 둘러보려면 텁방비 5,000원을 내야하는데 마을 입구에 있는 무인 돈통에 넣으면 된다. 힐링파크 쑥섬쑥섬을 둘러봤다면 나로우주센터와 나로우주과학관이 15분 이내 거리에 있으니 연계해 둘러보는 것도 근시한 여행 코스가 된다. 난도의 봉래산 편백숲, 백사장이 예쁜 나로우주해수욕장, 염포몽돌해수욕장도 추천한다.

그리고 함께 일구어 나갈 쑥섬의 희망

힐링파크 쑥섬쑥섬은 정원을 사랑하는 이들이 꼭 찾고 싶은 곳으로 손꼽히며 이미 많은 이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그 사이 해변공원과 쉼터를 만들었으며 옛 우물 중 활용가능한 것들을 복원하는 등 지역경제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었다. 올 상반기에는 자자체의 지원을 받아 마을의 돌담길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애도마을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것, 쑥섬쑥섬 힐링파크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자연스럽게 난로도항의 숙박시설이나 식당을 이용하도록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 역시 김상현·고채훈 부부가 이곳을 만든 이유기도 하다. 노인과 결손가정 아동 등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업, 청소년과 만학도를 위한 장학사업, 지역 사회의 리더형 인재를 육성·후원하는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또 강수량에 따라 물 사정이 달라지는 애도에 상수도를 개통할 예정이다. 마을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도 힐링파크 쑥섬쑥섬을 운영하는 이들 부부의 목표다. 또한 힐링파크 쑥섬쑥섬이 심신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선사하는 힐링가든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섬정원, 마을정원, 숲정원, 꽃정원, 경관정원 등을 추가적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수려한 비경을 자랑하는 남도 최고의 비밀정원 애도는 정원이 창출하는 사회적 순기능까지 알차게 일구어 가고 있다. 숲

3 — 바다를 배경으로 피어난 수국 군락은 보기만 해도 힐링 그 자체다.

4 — 김상현·고채훈 부부는 애도를 가꿔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한 이래 18년간 정원을 일궈왔다.

5 — 텁방로 코스를 걷다보면 애도의 자연에 얹힌 다양한 이야기와 만날 수 있다.

6 — 이곳의 동백나무는 200~300년이 된 거목이다. 3월이면 동백꽃잎으로 수놓인 아름다운 동백길을 걸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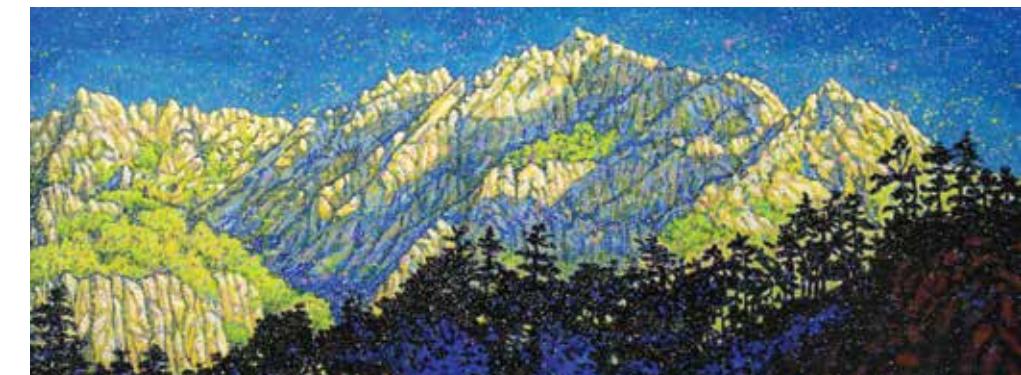
김상현·고채훈 부부
고채훈 씨는 전남 고흥군 봉래면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남편 김상현 씨는 동일면 내나로도의 고흥백양중학교 국어 교사다. 쑥섬은 김상현 씨의 고향으로,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부부가 합심해 18년간 정원을 기렸다. 주말과 휴일마다 숲길을 정비하고 비밀 정원을 만들었고, 400여 종이 넘는 꽃들이 계절마다 피고 지는 '힐링파크 쑥섬쑥섬'이 탄생했다.





금강산, 그 푸르고 강건한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온 이가 있다. 지난 1992년부터 지금까지 금강산을 그리며 관련 개인전도 20여 차례 연 신장식 화백이다. 그의 금강산 작품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장에 걸리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우리의 마음에도 잊혔던 명산, 금강산을 되돌려주었다.

글. 편집실 — 사진. 김병구



신장식, <금강산 옥류동의 빛> 2018, 캔버스에 한지 아크릴릭, 130X50cm

푸르른 희망이여,
꽃 같은 평화여 오라

신장식 화백

그의 봇 끝에서 새롭게 되살아난 금강산

중국의 문학가 루쉰은 말했다. '희망이라는 것은 원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에 놓인 길과도 같아서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고. 지난 4월 27일, 전 세계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희망을 보았다. 참 오랜 시간 닿을 듯 닿지 않았던 길이 다시 이어지는 첫 걸음을 목격했다. 그 날,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은 그림 한 점이 있었다. 국민대 미술학부 교수이기도 한 신장식 화백의 <상팔담에서 본 금강산>이다. 그가 지난 2001년 개인전을 통해 발표한 <상팔담에서 본 금강산>은

그 후 17년간 창고 먼지 속에 묻혀 있다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상팔담에서 본 금강산>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 들어가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약 7m 가까이 되는 대작이라 로비에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층 회담장에 걸린 걸 알고 깜짝 놀랐죠. 더구나 이 그림 앞에서 남북 정상이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니 참 뿌듯했습니다. 그림이 담고 있는 희망과 평화의 기운이 두 분에게 잘 전달되어, 우리에게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상팔담에서 본 금강산>은 캔버스 위에 제작한 닥종 이를 바르고 그 위에 아크릴로 금강산을 그린 작품이다. 신장식 화백은 '수목화의 선(線)과 민화의 색(色), 전체적으로는 현대 풍경화의 감각을 융합해 한 번 본 사람이라면 잊지 못할 절경, 상팔담을 그렸다'고 말한다.

"상팔담에 올라가면 금강산의 모든 주봉이 파노라마 처럼 펼쳐집니다. 그 전체 봉우리를 천화대, '하늘에 핀 꽃'이라고 해요. 그 꽃과 같은 아름다움과 하늘로 치솟는 기상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희망적 정서와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특히나 10~20대에게 금강산은 전설처럼 느껴지는 산이다. 발길이 멈춘 지 오래니 옛 자료들만으로는 마음이 가닿지 않은 게 솔직한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2018년 신장식 화백의 봇 끝에서 금강산은 새로이 되살아났다.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현대미술로 해석하는 작가가 되고파

그렇다면 신장식 화백이 금강산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그 시작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개폐회식제작단 미술총괄보로 일하면서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세계인에게 우리의 멋을 알려주고픈 마음이었지요. 그때부터 우리 민족에 숨어있는 조형적인 언어와 내용을 현대미술을 통해 보여주는 게 저의 길이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리랑'이란 주제를 정하고 청사초롱과 경복궁, 연꽃 등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복궁을 그리고 있는데 북한산과 북악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산을 그리고 싶다'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설악산이나 북한산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문득, 휴전선 넘어 금강산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휴전선이란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금강산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1992년 신장식 화백은 금강산에 대한 자료를 모아 연구를 시작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라 온갖 조선시대 그림부터 일본 사진가가 찍은 금강산 사진, 일제



신장식, <상팔담에서 본 금강산> 2001, 캔버스에 한지 아크릴릭, 681*181cm

강점기 때의 관광사진첩까지 찾아다녔고, 결국 1993년 표갤러리에서 금강산 전을 크게 열었다.

"가보지도 못하는 금강산을 왜 그렸냐고 묻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금강산은 아무도 안 그리는 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금강산은 우리 미학이 세워진 회화사의 성소입니다. 고려시대 노영의 불화 <자장보살도>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 김홍도의 회첩, 김규진의 <금강산만물초승경도> 등에서 알 수 있듯 한국 회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였고요. 그러다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 소 1,000마리와 함께 방북한 이후 문호가 개방되면서 1998년 금강산



신장식 화백

서울대와 동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1987년부터 1988년까지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개폐회식 제작단 미술총괄보 일을 하면서 세계에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올림픽 이후 전통의 맥을 찾는 작업으로 '아리랑'이라는 테마를 추구했으며 우리 민족 정서에 근거한 그의 작업은 1993년부터 '금강산'이라는 테마로 돌아간다. 그는 본단 이후 우리 미술사에서 아무도 그리지 않던 금강산 그림을 시도했다.

1 — 2018 남북정상회담장에 걸린 신장식 화백의 작품

2 — 우리 민족에 숨어있는 조형적 언어와 내용을 현대미술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신장식 화백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방북 첫 번째 배를 타고 금강산에 갔어요. 그로부터 10년간, 금강산을 10여 번 방문해 부지런히 사진을 찍고 스케치를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신장식 화백은 1998년 11월 19일, 금강산을 처음 봤을 때의 벽차오르는 설렘을 기억한다. 그간 여러 자료를 통해서만 보던 금강산의 모습이 두 눈 가득 담긴 순간, 신장식 화백은 '우리 산이 구나!'란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고 한다. 세계 곳곳에 이름난 산이 무수히 많지만 그 웅장한 아름다움에 감탄할지언정, '우리 산'이란 느낌은 들지 않는다. 하지만 금강산은 보자마다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지난 2월엔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금강산: 한국 미술 속의 기행과 향수'전에 작품을 출품했어요. 화가로서 우리의 정서와 아름다움을 현대미술로 표현해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인 만큼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금강산에 가게 된다면 금강산에서 비박하면서 안개에 둘러싸인 모습을 그리고 싶어요. 또 머지않아 누구나 자유롭게 금강산에 가서 그 웅흔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장식 화백의 모습 뒤로, <금강산 옥류동의 빛>이 보인다. 그가 2018년에 그린 작품이다. 잠시 그림을 보고 있으니, 푸르른 희망의 빛이 화폭 밖으로 번져가는 느낌이다. 아리랑 고개를 넘듯, 녹슨 철책을 지나 얹어붙은 마음을 물들이는 빛. 신장식 화백의 바람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꽃과 같은 평화가 함께하길, 인터뷰를 마치며 가만히 두 손을 모아본다. 숲

산이 품은 문화와 가치를 발견하다

왕산약초체험마을 최무열 대표

그에 말마따나 '다 팔아먹고' 산에 들어온 지 11년. 5만 평의 거친 땅을 정성껏 보듬고 일구는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산은 그가 맛바꾼 것 이상의 가치와 행복을 아낌없이 선물했다. 강원도 강릉의 깊은 산골, 왕산약초체험마을의 최무열 대표를 만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청했다. 글. 편집실 — 사진. 이용국

자연이 준 선물, 산약초의 매력에 빠지다

바쁜 일정을 쪼개 시간을 내준 최무열 대표를 만나기 위해 강원도로 향했다. 비가 훌뿌리는 산간도로를 오래 달린 끝에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에 위치한 왕산약초체험마을에 도착했다. 해발 900m 백두대간 능선, 덕우산에 자리 잡은 이곳에 도착하니 마치 땐 세상에 온 듯했다. 안개가 자욱하게 께 숲은 신비로웠고 부슬부슬 내리는 비는 숲의 청신한 맨얼굴을 말갛게 씻어주고 있었다. '체험마을'이라 이름 붙었지만 테마파크 같은 인공 시설물로 채워진 곳은 아니었다. 대신 읊창하게 우거진 산림이 어느 테마파크 못지않은 볼거리를 자랑하고 있었다. 통나무로 만든 작은 산장, 붉은색의 작은 모노레일이 자리한 풍경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이런 풍경에 취해있는

동안 최무열 대표가 나타났다. 통나무 산장에 앉아 빗소리와 함께 인터뷰를 청했다.

"도시에서 건설업을 했는데 1997년 IMF 사태로 부도를 맞았어요. 사업을 하면서 돈 거래에 있어서는 단 10원도 허투루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신뢰를 철저히 지켜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도 어음을 돌린 거죠. 당시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대인기피 증세까지 왔으니까요. 그래서 찾은 곳이 산이었습니다."

땅이나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속에 머물다 보니 최무열 대표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됐다. 도시에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갖던 산약초에 대해 본격적인 공부도 시작했다. 몇 시간씩 산행을 하며 산약초를 캐러 다니는 건 예사. 오랜 시간 독학으로 배웠지만 성분



분석 같은 전문적인 분야는 1년간 강원대 산림농업과정과 2년간 농림부 마이스터대를 통해 배웠다. 산양삼의 경우 딱 봐도 몇 년짜리 삼인지, 어디서 자란 것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랐다.

“산약초는 어떤 첨가물 없이도 즐길 수 있지요. 가공을 하더라도 화학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연 그 자체라는 점이 산약초의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가 산약초에 빠진 이유 역시 의미심장하다. 그 자체로 진실함과 거짓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산과 산약초는 그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자 가치관과도 무척이나 통해 있었다.

함께 즐길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가치

왕산약초체험마을이 있는 덕우산은 잡목이 우거져 동물들도 못 다닐 정도의 거친 산이었다. 이곳 사람들은 버려진 산이라고도 했다. 최무열 대표는 길을 닦고 정성껏 일궈 5만 평이 넘는 산림 재배단지를 만들었다. 산양삼, 산약초, 산더덕 등 귀한 임산물들을 풍요롭게



왕산약초체험마을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산 50번지
문의 : 033-645-8113
www.sansam1004.com

품은 가치 있는 산으로 변화시켰다. 희귀식물과 야생화가 지천에 자라는 이 아름다운 곳을 많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에 최무열 대표는 청정 임산물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숲에서는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자연이 주는 이러한 행복을 나 혼자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깝다. 싶어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임산물 재배도 중요하지만 이 역시 숲이 주는 무한한 가치를 발견하는 일인니까요.”

최무열 대표는 임산물로 수익을 내는 것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숲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숲이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고민했다. 덕분에 왕산약초체험마을에는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모노레일을 타고 숲과 농장을 둘러볼 수 있는데 최무열 대표가 숲 해설과 산약초에 대한 생생한 지식을 들려준다. 숲해설가, 농촌관광문화해설사 자격증까지 갖고 있는 그다. 산양

삼이나 산더덕을 직접 캐볼 수도 있다. 모노레일은 농장이 워낙 넓고 지대가 높아 수월하게 산약초 재배를 하기 위해 설치한 것인데 방문객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돌아오는 모노레일 코스는 한 시간 정도 소요된다. 청량한 숲을 모노레일을 타고 누비는 경험은 이곳만의 명물이 됐다. 모노레일은 산속에 길을 닦는 것보다 오히려 산림을 덜 훼손하는 장점도 있어 경상남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한 바 있다. 모노레일 체험이 끝나면 산양삼 4뿌리가 들어간 특별한 백숙도 맛볼 수 있다.

성공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

왕산약초체험마을에는 여행 목적뿐만 아니라 견학을 위해 찾는 이들이 유난히 많다. 최무열 대표는 임업과 귀산촌을 시작하는 이들이 꼭 만나고자 하는 ‘산림멘토’로도 통한다.

“임업 컨설팅을 위해 찾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제가 그분들께 왜 임업을 하려느냐고 꼭 물어요. 돈 벌기 위해 한다는 사람이 있고, 산이 좋아서 시작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는 무조건 실패하고, 후자는 대부분 정착해요. 사실 돈 벌 수 있는 일은 도시에 훨씬 많거든요. 저 역시 돈을 벌고자 했으면 산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귀산촌을 할 때도 주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산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산에 있으면 아무 것도 안 해도 행복하거든요. 무엇보다 산이 좋아서 온 이들은 자연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 생기게 되요. 이런 소신이야말로 임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익도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귀산촌과 임업에 대한 강의를 하고, (사)임업후계자협회 회장으로서 임업인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산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인터뷰 내내 그 진심이 절로 전해졌다.

“스위스의 관광 수입이 연간 약 38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8조 원 정도이고요. 스위스에 가면 다들 산악관광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산악관광을 하는 비율은 2%로도 안 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스위스보다



4

우리의 산림자원이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위스에 알프스 산맥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거기서 경험할 수 없는 울창한 숲이 있어요. 우리의 산림 정책 역시 무조건 보호하는데 급급하기보다, 전 국민이 보다 산을 사랑하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꿔왔으면 합니다. 산이 이렇게 좋다는 걸 알게 되면 국민들 스스로 감시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지 않을까요?”

최무열 대표는 산에 온 이후로 과시욕이나 상대적 박탈감에서 해방됐으며, 산이 행복의 기준과 가치관을 바꿔놓았다고도 말한다.

“귀산촌 노하우에 대한 강의를 하러 많이 다니는데, 가면 꼭 저한테 말도 안하고 ‘귀산촌 성공사례’라고 크게 써붙여놓더군요. 저는 성공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 하거든요. 성공의 기준을 경제적 이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임산물이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데 급급한 것

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지역과 상생할 줄 아는 태도 역시 중요하다는 최무열 대표. 더 많은 이들이 자연과 가까워지고, 그들의 걱정이 숲에서 눈녹듯 사라지길 바란다. 성공사례가 아닌, 진정한 산림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가 있어 정말 다행이다. 인터뷰가 끝나고 약수를 나눈 후 그와 헤어졌다. 산처럼 강건하고 따뜻한 손길 덕분에 돌아가는 길이 그리 멀게만 느껴지진 않았다. 숲

1 — 모노레일을 타고 숲을 누비는 특별한 경험은 왕산약초체험마을에서만 만날 수 있다.

2 — 최무열 대표는 생장조건이 까다로운 산양삼 재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덕분에 청정지역에서 자란 이곳 산양삼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3 — 농장에는 희귀식물과 야생화가 지천에 피어나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4 — 많은 이들과 산의 가치를 나누고, 질 좋은 산림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최무열 대표



枸杞子 구기자

푹푹 찌는 더위에 입맛은 없고 체력도 떨어지기 쉬운 계절. 몸의 기운을 더해주는 건강한 식재료를 챙겨 먹어보자.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붉은빛을 띠 때 채취하는 구기는 피로 회복과 항산화 작용에 뛰어난 임산물이다. 주로 열매를 말려서 먹는데, 맛이 달고 향이 은은해 어느 음식에 넣어도 잘 어울린다. 구기를 더한 담백한 여름 보양식으로 심신에 활력을 꽉 채워보는 건 어떨까.

글/진행. 편집실 — 사진. 김병구 — 요리 스타일링/도움말. 조해님(레베카 애 미겔레) — 어시스턴트. 팽진희



몸의 기운을 보하는 담백한 맛

구기자를 더한 여름 보양식

가지과에 속하는 구기자나무는 6월에 보라색 꽃이 피고, 7~10월에 뺨갛게 익은 열매를 수확한다. 구기자나무는 잎을 따서 차로 끓여 마시기도 하고, 뿌리껍질을 약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주로 열매를 먹는다. 흔히 '구기자'라고 하면 이 구기자나무의 열매를 말한다.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위해 매일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구기는 하해진 기운을 보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예로부터 하수오, 인삼과 함께 3대 약생 정력초로 불렸을 만큼 자양강장에 탁월한 효과를 지녔다.

자양강장의 역할을 하는 이유는 구기자에 간 기능 강화를 돋는 베타인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 베타인 성분이 간세포 생성을 촉진하고 간에 지방을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 피로하고 눈이 침침하다고 느끼면 구기를 달인 물을 섭취하면 좋다. 이 베타인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다. 마돈나, 케이트 모스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열광한 슈퍼푸드, '고지베리(Gojiberry)'가 바로 이 구기자라는 사실! 그만큼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

구기자에는 오렌지보다 500배가량 많은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기미를 억제하고 주름을 개선한다. 다른 베리류에 비해 당의 함량도 낮다. 비타민 B₂와 탄닌 성분도 갖고 있어 지방을 분해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구기는 날 것으로도 먹지만 주로 말린 것으로 유통된다. 말린 구기자를 차로 끓여 먹기도 하고 요리에 곁들이거나 우린 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주로 국물 요리, 찜 요리 등에 잘 어울린다. 차로 마실 땐 물 2L에 구기자 20~30g을 넣고 중간 불에서 약 30분에서 1시간간 끓인다. 구기는 독성이 없어 물처럼 자주 섭취해도 무리가 없다. 다만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으니 체질상 몸이 차다면 따뜻한 성질의 대추나 생강과 함께 끓여 마시는 것을 권한다. 구기를 분말 형태로 섭취할 때는 따뜻한 물에 타 먹거나 요구르트, 샐러드 등에 섞어 먹으면 달달한 맛을 낸다.

건강한 여름나기, 말간 붉은 빛의 구기자와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 몸과 마음에는 긍정적인 기운을, 얼굴에는 빛나는 생기를 더해줄 것이다.

재료(2인 기준)

닭 1마리, 물 7컵(닭이 잠길 정도), 대파 1/2대, 마늘 2쪽, 생강 1쪽
(국물 재료_닭육수 6컵, 구기자 1큰술, 참깨 1/2컵, 대파 1/2대, 마늘 2쪽, 생강 1쪽, 소금 1/2 작은술, 후추가루 약간/고명 재료_전복 1개, 오이 1개, 표고버섯 2개, 배 1/2개, 달걀 1개, 장 1큰술)

만드는 법

1—식초물에 깨끗이 씻은 구기자와 닭, 대파, 마늘, 생강, 물을 넣고 닭이 익을 때까지 끓인다.
2—재료가 꽂 우러난 국물을 면보에 걸러내 깨끗한 닭육수를 준비한다.

3—껍질을 제거한 닭의 살코기를 끊거나, 편을 썰어 준비한다.

4—참깨를 팬에 볶은 후, 막서에 넣는다. 준비한 닭육수를 부어가며 곱게 갈아준 다음 면보에 거른다.

5—전복은 껍질을 제거하고 솔로 씻어 준비한다.

6—정종 한 스푼을 넣어 끓는 물에 손질한 전복을 져준 후, 편을 썰어둔다.

7—오이는 소금으로 씻은 후 채썬다. 표고는 미지근한 물에 데친 후 채썬다. 달걀은 황백지단을 부쳐 채썰어 준비하고 배도 납작썰기하여 준비한다.

8—오목한 볼에 닭살, 전복, 표고, 황백지단 순으로 가진한히 담고 식힌 깨육수에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다음 잣으로 장식한다.

재료(1인 기준)

쌀 1/2컵, 검정쌀 1/2컵, 불린 검정콩 2큰술, 불린 구기자 2큰술, 대추 3알, 수삼 1뿌리, 은행 5알, 깐 밤 3개, 구기자 불린 물 1컵
(양념장 재료_간장 1큰술, 집간장 1작은술, 다진마늘 1작은술, 다진파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깨소금 약간, 고춧가루 약간)

만드는 법

1—쌀과 검정콩은 미리 씻어 찬물에 담가 부드럽게 불린다.

2—세척한 구기자를 미지근한 물에 3시간가량 불린다.

3—밤은 반을 잘라 준비한다. 대추는 깨끗이 씻은 후 반으로 갈라 쌈을 제거하고 다시 반으로 잘라 준비한다.

4—수삼은 솔로 깨끗이 씻어 흙을 제거하고 어슷썰기 하여 준비한다. 은행은 기름을 살짝 두르고 파랗게 볶아 속껍질을 벗겨낸다.

5—냄비에 쌀, 수삼, 밤을 넣고 구기자 불린 물을 붓는다. 밥물이 끓어오를 때까지 뚜껑을 열어 악한다. 밥물이 오르면 주걱으로 뒤적여 준 다음, 불을 줄이고 뚜껑을 닫아 다시 끓여준다.

6—밥물이 자작하게 좋아들면 대추를 넣고 뜰을 들인다. 마지막에 준비한 은행을 넣는다.

7—분량의 양념장 재료들을 섞어 밥과 함께 곁들인다.

구기자를 곁들인 초계탕

①



② 구기자 영양밥



산사태, 과학적인 산림 관리로 막는다!

산사태 피해 줄이기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63%가 산지다. 장마와 태풍이 몰려오는 여름이면 산사태의 위험도 높아진다. 산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해진 요즘, 산림청 역시 '산사태 예방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산사태를 막기 위한 다양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산사태의 원인과 예방법 등 관련 지식에 귀 기울여보자. 글. 편집실 — 자료협조.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와 산지 개발로 산사태 급증

산사태가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산 비탈면 속에는 흙과 암반의 경계가 있다. 비가 오면 흙이 물을 흡수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이 역시 한계가 온다. 흙 속 빗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에 물이 넘치면서 암반 위의 흙이 비탈면 아래로 미끄러지고 산사태가 일어난다. 우리나라는 산지의 경사가 급하고 계곡이 짧아 여름철 국지성 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빈번하다. 우리나라 연평균 산사태 발생면적을 살펴보면 1980년대 231㏊, 1990년대 349㏊, 2000년대 713㏊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태풍 같은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난 탓이다(지난 100년간 6대 도시 평균기온은 약 1.7°C가 상승했고 강수량은 약 10% 증가했다). 기후변화는 강우패턴도 변화시켰는데 짧은 시간 특정지역에 많은 양의 강우가 집중되고 있어 산사태 발생 예측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그 양상도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도시생활권 내 산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면서 도시생활권 내 산사태로 인한 피해규모도 증가했다. 2011년에는 도시생활권에서 일어난 서울 우면산 산사태, 춘천 마적산 산사태로 인해 엄청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발생 피해를 예측하는 산사태정보시스템

산사태를 미리 막기 위해선 사방댐 같은 사방구조물을 만드는 방법, 산사태 발생을 미리 예측하는 방법, 건강한 숲을 가꾸는 방법이 있다. 사방댐은 산속 계곡의 흙, 돌, 유목(流木, 물에 의해 흘러 내려온 쓰러진 나무 혹은 나무 부스러기) 등의 이동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댐과 달리 물은 흘려 보내고 산기슭에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다량의 흙, 돌 등을 저지한다. 이러한 사방댐은 산림청의 지속적인 사방사업 덕분에 우리나라에 약 10,597개소(2016년 기준)가 설치되어 있다. 토석류와 같이 많은 양의 흙이나 돌, 유목 등이 한꺼번에 흘러 내려올 때 이를 저지하고, 평소에는 이를 조금씩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 산림재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토양이 산지에 머물러 있게 하는 산지보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산림청은 2011년 우면산 산사태를 기점으로 이전까지 농산촌지역의 산사태에 주력했던 재해대책을 도시생활권 산사태로 확대한 바 있다. 2012년 2월 산사태의 체계적 예방과 대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을 개정했고 7월에는 산사태 전담 조직인 '산사태방지과'도 신설했다. 도시생활권의 사방댐 시공도 적극 추진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

조사를 통해 총 4,006개소를 파악해 관리를 시작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산사태 예·경보, 전국 산사태 위험지도를 포함한 산사태정보시스템(<http://sansatai.forest.go.kr>)을 고도화한 것도 이때부터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현장 산사태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토석류 피해 시뮬레이션에 따른 사방댐 효과분석 기능, 실시간 강우 이동 상황 모니터링 모듈을 도입했다. 토석류 피해예측지도도 포함하는데 산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어디까지 피해를 입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산사태를 막는 건강한 숲의 힘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은 바로 건강한 숲을 꾸리는 것이다. 숲의 나무는 땅을 단단히 고정시켜 큰 비에도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여름, 강원도 인제군 덕적리에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10여 년간 산림청이 숲가꾸기를 해 왔던 국유림 지역에는 산사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숙야베기와 가지치기를 통해 나무가 충분히 잘 자랄 수 있도록 돋는 '숲 가꾸기' 덕분이었다. 같은 작업을 거치면 나무 하나당 뿌리의 깊이가 관리를 안 한 숲의 나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고 뿌리의 양은 5배 이상 많아진다. 나무의 굳은 뿌리가 암반층까지 뚫고 들어가 말뚝 같은 역할을 하고, 나무의

1—산림청은 산지보전과 산림재해 방지 위해 사방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가는 뿌리들은 서로 얹혀 그물망을 형성해 숲이 쉽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 때문에 산불이 난 지역은 나무와 풀이 다 타버려 표토가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침식이 심하고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많다. 또한 산불피해목은 산사태 발생 시 물과 함께 유출되어 피해를 증가시킨다. 지난 2000년 산불이 크게 났던 동해안 지역에서는 2002년 태풍 류사, 2003년 태풍 매미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동해안 일대 4,035ha에 달하는 대면적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4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복구에 약 3,520억 원이 투입된 바 있다.

산사태 예방지원본부가 나선다

산림청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산사태 위험 정보를 수집·전파하고 산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산사태 예방지원본부'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정선 일파인경기장과 동해안 대규모 산불피해지를 대상으로 예방 대응 활동을 벌일 예정. 더불어 동해안 대규모 산불피해지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임도 시설·대규모 별채사업지의 위험성 점검도 실시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산림치유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의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산림청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산사태 예측분석센터'도 설치해 운영하는데,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산사태 무인 원격 감시 시스템을 통해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본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올해는 이 산사태 무인 원격 감시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모니터링과 위험도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산림청은 지난 6월, 산사태 발생 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산림공학회, 한국지반공학회, 대한지질공학회, 한국방재학회 등 산사태 분야 전문가 100명을 산사태원인조사단으로 위촉했으며 사방댐 504개소, 계류보전 335km 등 사방사업도 완료한 상태다. 정확한 원인을 점검하고, 피해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줄이기 위한 산림청의 활약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숲

산사태, 얼마나 알고 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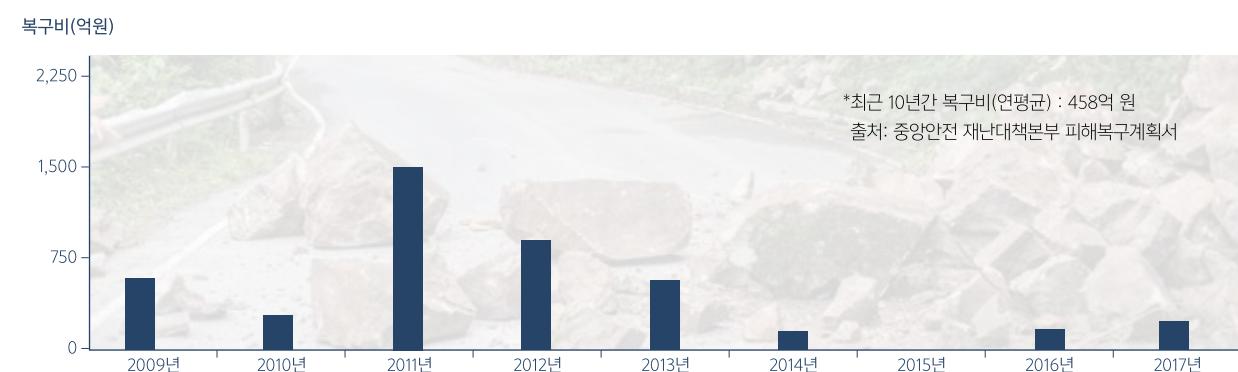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전 세계 추세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다. 강수량 상승 등의 이상기후가 계속되니 올 여름, 산사태 위험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또 휴가철을 맞아 나들이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광지, 펜션 등을 조성하기 위해 산기술과 계곡 주변을 산지전용한 경우는 대규모 산사태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한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행동 요령도 기억해 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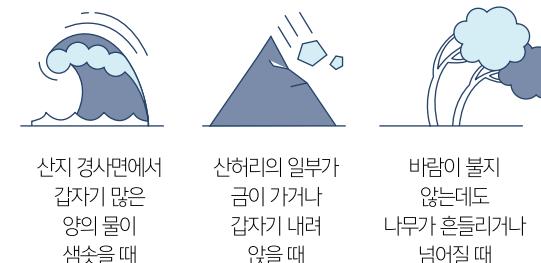
산사태 피해 규모는?



산사태 복구비용은?



산사태 발생 징후



산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위험이 높은 곳으로 접근하지 않기
- 토석류는 순식간에 발생하므로 토석류 진행방향의 옆방향으로 대피
- 주민 대피령 발생 시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피
- 대피 전 가스밸브는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 2차 피해 방지
- 산사태로 고립되었을 경우 119로 구조 요청

도시인을 숨 쉬게 하는 숲의 힘

세계의 도시숲을 만나다

도시는 발전할수록 인위적인 환경이 늘어나고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며 대기오염도 심해진다. 도시 숲은 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도시인의 정서를 순화하고 활력을 회복한다. 세계적인 도시들은 이러한 도시숲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시민들이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공원, 숲, 녹지 공간들을 조성해 가꾸고 있다. 그중 호주 브리즈번, 독일 후라이브르크, 러시아 모스크바의 도시숲 사례를 소개 한다. 글. 배상원(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연구교수)

숲과 가로수로 가득한 호주 브리즈번

호주 동부 해안지역에 있는 브리즈번은 퀸즈랜드의 주도다. 인구는 113만 명, 호주에서 3번째로 큰 도시다. 난대아열대 지역에 위치한 브리즈번에는 수백 개의 크고 작은 공원과 2개의 식물원이 자리해 있고 보호자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다. 시내 중심에는 브리즈번강이 흐른다. 시 면적의 50% 이상 나무로 덮여 있을 정도로 숲과 가로수 등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도심 한 가운데 있는 시립식물원, 로마 스트리트 공원, 뉴팜공원 그리고 도심에서 7km 떨어진 곳에 있는 쿠타산 식물원을 비롯해 외곽지역에 쿠타산 숲, 앤스테드의 자연보호구역, 카리와타 산림공원 등이 있다.

면적 20ha 규모의 시립식물원은 1855년에 개장했다. 시내 변화기와 인접한 이곳은 '퀸즈공원'으로도 알려져 있다. 시립식물원에는 희귀식물종과 소철, 야자수,

무화과, 대나무 등이 수집되어 있어 1997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식물원 내에는 피크닉 공간이 있으며 결혼식 등의 행사도 진행된다. 식물원으로 들어서면 시원하게 펼쳐진 풀밭과 들판듬성 자라고 있는 커다란 나무들이 인상적이다. 야자수 컬렉션 지역은 시원한 해변을 연상시키고 항아리 모양의 줄기를 지닌 높이 3~4m의 바오밥나무도 볼 수 있다. 강변으로는 폭 좁게 맹그로브숲이 자리를 잡고 있다. 높이가 4~5m 정도로 크지 않지만 강가에 맹그로브 숲이 있는 것 자체가 의아한데 강물이 담수가 아닌 염수라 형성된 듯하다.

시청광장, 기차역과 연결되어 있는 면적 16ha의 로마 스트리트 공원은 세계 최대의 아열대 정원으로 2001년에 개장했다. 원형 야외 공연장, 아열대 우림, 호수, 풀밭 등이 펼쳐져 있는데 이 공원에서는 피크닉,



크고 작은 공원과 도시숲이 즐비한 호주 브리즈번



결혼식 등을 할 수 있으며 식당시설도 있다. 호수주변으로는 짙은 초록색의 우림이 조성되어 있고 호수가에는 판다누스, 병솔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다. 습지에서는 다양한 고사리종류도 볼 수 있다.

1,600ha의 쿠타산 숲은 유칼립투스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계곡부에는 우림이 있어 숲의 다양성이 돋보이는 곳이다. 정상 부근의 전망대에 오르면 브리즈번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9개소 피크닉 장소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하다.

세계적인 생태도시를 완성하는 도시숲

독일 남서부에 있는 후라이브르크는 인구 22만 명, 면적 15,300ha 규모의 우리나라 강릉 정도의 중소 도시다. 하지만 1457년에 설립된 후라이브르크 대학을 비롯해 임업대학이 있는 대학도시이자 임업연구도 시이며, 태양광 전지, 바이오기술 개발 등으로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생태도시다. 후라이브르크의 도시숲

면적은 6,000ha가 넘는다. 전체 면적의 40% 이상에 해당한다. 온난한 기후 덕분에 포도밭도 700ha에 달한다. 도시의 대부분이 푸른 숲과 초지로 이뤄져 있다. 특히 후라이브르크 도심의 시립정원은 초지, 숲, 놀이시설, 연못 등이 29ha 면적에 자리해 있다. 케이블카로 산 중턱까지 올라갈 수 있어 노약자가 손쉽게 숲을 찾을 수 있다. 시립정원 위쪽에 위치한 술로스베르크는 높이가 30m에 달하는 너도밤나무, 단풍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대낮에도 이 숲에 들어가면 그늘이 져 어둡게 느껴질 정도다. 이 숲길을 통해 슈바르츠발트로 들어갈 수 있다.

슈바르츠발트 지역에는 도시숲 샤우인스란트가 있다. 산악림인 이곳은 중세시대에는 은과 주석을 채굴하는 광산으로 개발된 적이 있다. 숲이 벌채가 되어 지금은 초지로 이용되는 곳이 많고, 일부는 스키장으로 개발이 되었다. 대신 개발이 안 된 지역은 독일 가문비나무가 빽빽이 자라고 있다. 이 모습을 보면 검은 숲을

1 — 독일 남서부의 생태도시, 후라이브르크 전경
2 — 전체 면적의 30% 이상이 녹지인 모스크바 전경
3 — 러시아의 도시숲 세레브라니 보르에 있는 지보피스니 다리

뜻하는 슈바르츠발트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를 실감할 수 있다. 숲에는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숲 외곽에는 놀이터, 캠프장, 식당이 있다. 호수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영도 할 수 있어 한 여름에도 많은 사람들이 숲을 찾는다. 다양한 후라이브르크의 도시숲은 진정한 생태 도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모스크바 시민들이 사랑하는 휴양공간

모스크바의 인구는 약 1,200만 명으로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다. 도시 면적은 251,100ha로 이중 30% 이상이 녹지다. 이 안에 약 100개의 공원과 800개소 이상의 녹지시설, 500개 정도의 연못이 있다. 모스크바 북동부에는 면적 12,000ha의 라시니 오스뜨라프 국립공원, 남서부 지역에는 면적 2,000ha 비체프스키공원, 북부지역에는 면적 500ha의 티미랴제프공원이 있다. 북서부 지역에는 세레브라니 보르의 소나무 숲, 도심권에는 고르카공원 등이 있다.

모스크바의 도시숲 중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은 북서부 강변에 위치한 세레브라니 보르다. 은빛 소나무 숲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17세기부터 소나무 숲으로 유명한 곳으로, 수령 200년이 넘는 나무들이 자란다.

제정 러시아 황태자가 이곳에서 휴가를 지내면서 모스크바 귀족, 유명 상공인들도 이곳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유명 정치가, 국회의원, 외교관, 대사, 배우, 예술가들이 사는 상류층 주거지로 자리 잡았다. 이곳은 모스크바 지역에서도 공해가 적어 모스크바 시민들의 휴양공간으로 사용받는다. 여름 휴가철이나 날씨 좋은 주말에는 사람들로 가득 찰 정도다. 겨울철에도 노르딕 스키를 탈 수 있어 인기다.

세레브라니 보르 소나무 숲으로 들어가면 높이 20m 가 넘는 붉은 줄기의 구주소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 이 곳에 자라고 있는 모습은 우리나라 태백산맥 지역의 금강송숲을 보는 듯하다. 숲 속으로 더 들어가면 호수변으로 길이 나있는데 커다란 소나무와 버드나무가 들판을 자라고 있다. 호수에는 사람들이 수영을 하러 오기도 한다. 호수변의 소나무 노거수의 우산 같은 수관, 모래밭, 물가의 활엽수와 정자는 마치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것 같다. 호수에서 숲으로 들어가면 굵기가 한 아름이 넘고 키가 20~30m가 되는, 수령이 100년이 넘는 붉은 줄기의 소나무 노거수가 무리를 이루며 자라는 모습이 붉은 장막을 친 듯 장관이다. 숲

Tip

산림청, 몽골에 도시숲 조성하다!



산림청이 황사와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40㏊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한다. 지난 5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도시숲 조성 착공식을 가졌으며 2021년에 완공될 계획. 몽골의 기후와 여건에 맞는 현지 식생을 중심으로 교목과 관목류 등을 조화롭게 심고, 지역 주민들이 도시숲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산림청은 주민 소득과 연계된 나무심기, 혼농임업 등 다양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자치단체와 비정부기구 등 관계기관과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산림청은 지난 10년간 매년 몽골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해온 바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몽골의 사막화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온 산림청이 도심의 미세먼지 문제에도 눈을 돌린 것. 몽골 울란바토르의 공해를 줄이고,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공간으로서 산림청의 도시숲이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나무 안에서 함께 꾸는 꿈

인트리협동조합

기분 좋은 나무 냄새가 흐하고 스며든다. 별다른 간판 없이도 나무를 다루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보니 각종 도구로 나무를 다듬는 소리가 귀를 메웠다.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작업에 열중하던 인트리협동조합의 장두열 대표는 일부러 낸 인기척을 듣고서야 고개를 들었다. 벌써 4년째, 산림 분야 사회적기업을 이끄는 그의 눈에는 여전히 처음과 같은 뜨거운 열정과 꿈이 빛나고 있었다. 글. 편집실 — 사진. 김병구

목공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인트리협동조합(이하 인트리)을 이끄는 장두열 대표는 처음부터 목공을 본업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15년간 카센터를 운영하며 취미로 목공을 배우던 그는 전문적인 목조건축 학원에 다니면서부터 목공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

“목조건축 학원에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은 뒤, 함께 배우던 수강생 한 분과 함께 어머니의 집을 지어드렸어요. 이후 우리 집도 직접 짓게 될 때쯤, 카센터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목공을 본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집 앞에 ‘하늘공예목공소’를 차리고 목공사업에 뛰어든 장 대표. 그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목공공모 사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목재 장난감 만들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교육을 진행하면서 아쉬움도 느꼈다. 대부분의 목공교육이 단순히 배움으로만 끝날 뿐 취업이나 창업 등 지속 가능한 것으로 이어지지

않다는 점이었다. 목공교육 수업에서 배운 것을 활용해 수강생들이 이후에도 제품을 만들고 목공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그는 목공사업을 하며 만났던 사람들과 함께 인트리를 설립하게 된다. 인트리는 다양한 목재가공품을 생산해 근처 로컬푸드 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DIY 목공예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목공 교육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단순히 ‘함께 뭉쳐서 무언가를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사회적기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죠.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저런 컨설팅을 해주는데, 그걸 통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교육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교육 수료 후 공모를 통해 지역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인트리는 곧이어

완주군에서 처음으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되기에 이른다. 2017년 9월에는 드디어 사회적기업으로 정식 인증을 받았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들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만들고, 가르치고, 베풀다

인트리의 주요사업은 크게 ‘교육사업’, ‘일반사업(목재가공품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사회적기업 활동’으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목공교육’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인 ‘우드뱅(Wood-Bang)’을 통한 교육이다. 자유학기제와 인성 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진로·직업이 진행되지만, 대부분 단발성이거나 결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인트리의 우드뱅은 결과 중심의 교육을 벗어나 과정 중심의 목공교육을 통해 직업적 탐색뿐만 아니라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

“아이들에게 단순히 목공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만이 아닌 산림의 선순환 구조를 가르쳐서 건강한 숲이 곧 건강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돋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나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러한 나무들이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현재 완주군으로부터 진로직업체험 지정 체험터로 선정되어 수십여 개의 학교와 연계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미션과 목공 프로그램을 접목한 숲 체험 프로그램인 ‘초록별의 전설’도 진행하고 있어요.”



인트리협동조합
홈페이지 www.intreekorea.com
문의 063-263-0538

1, 2 — 저기의 질 낮은 수입 제품에 맞서 실용적이면서 현대적 디자인을 갖춘 목공 제품을 만들기 위해 인트리협동조합원들은 오늘도 땀 흘리고 있다.

3 — 인트리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으로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기여 역시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4 —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목공 교육을 추구하는 인트리협동조합. 이곳의 DIY 목공예 교구는 교사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주요사업 중 다른 하나는 ‘목재가공품 제조 및 판매’다. 목공교육 패널, 목재를 활용한 실내 인테리어, 가정 친화 목제품(주방, 건강, 장난감 등)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인데, 주로 주변 도시의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해 판매 시장을 전국 및 해외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나무를 활용한 간판 및 안내판, 판촉용 상품 등을 제작해 판매한다. 장 대표는 저가임을 앞세워 좋지 않은 품질의 수입 제품이 시장에 나오는 것에 맞서 땀 흘려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작년에 저희가 만든 수제 원목도마가 큰 인기를 얻었어요. 2017년 협동조합박람회에서 우수제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로는 인트리의 제품들이 현대적인 디자인은 물론 실용적인 기능을 반영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온라인 등 판로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매출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도 일궈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인트리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기여 역시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인 ‘특수교육 사업’을 꾸준히 운영하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목공예지도자 양성교육’,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목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해 가구를 만들거나 그들의 공간을 위한 인테리어도 진행하고 있다.

“한 번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모자원’의 복도 인테리어를 약간의 재료비만 받고 진행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그곳에 거주하는 분으로부터 손편지가 와있더라고요. 인테리어를 해줘서 고맙다는 것, 그리고 매일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행복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지만 정말 뿌듯했어요.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나무처럼 묵묵히 성장하다

하늘공예목공소에서 인트리협동조합까지, 사업을 운영한 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장 대표는 아직도 자리를 잡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해야 할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진행해야 할 일들이 워낙 많아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몇 가지를 간단히 언급하자면, 우선 사업적으로는 온라인 쇼핑몰을 더욱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좋은 제품을 아무리 많이 만들 어도 팔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더욱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인트리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서 위기 청소년들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숲 친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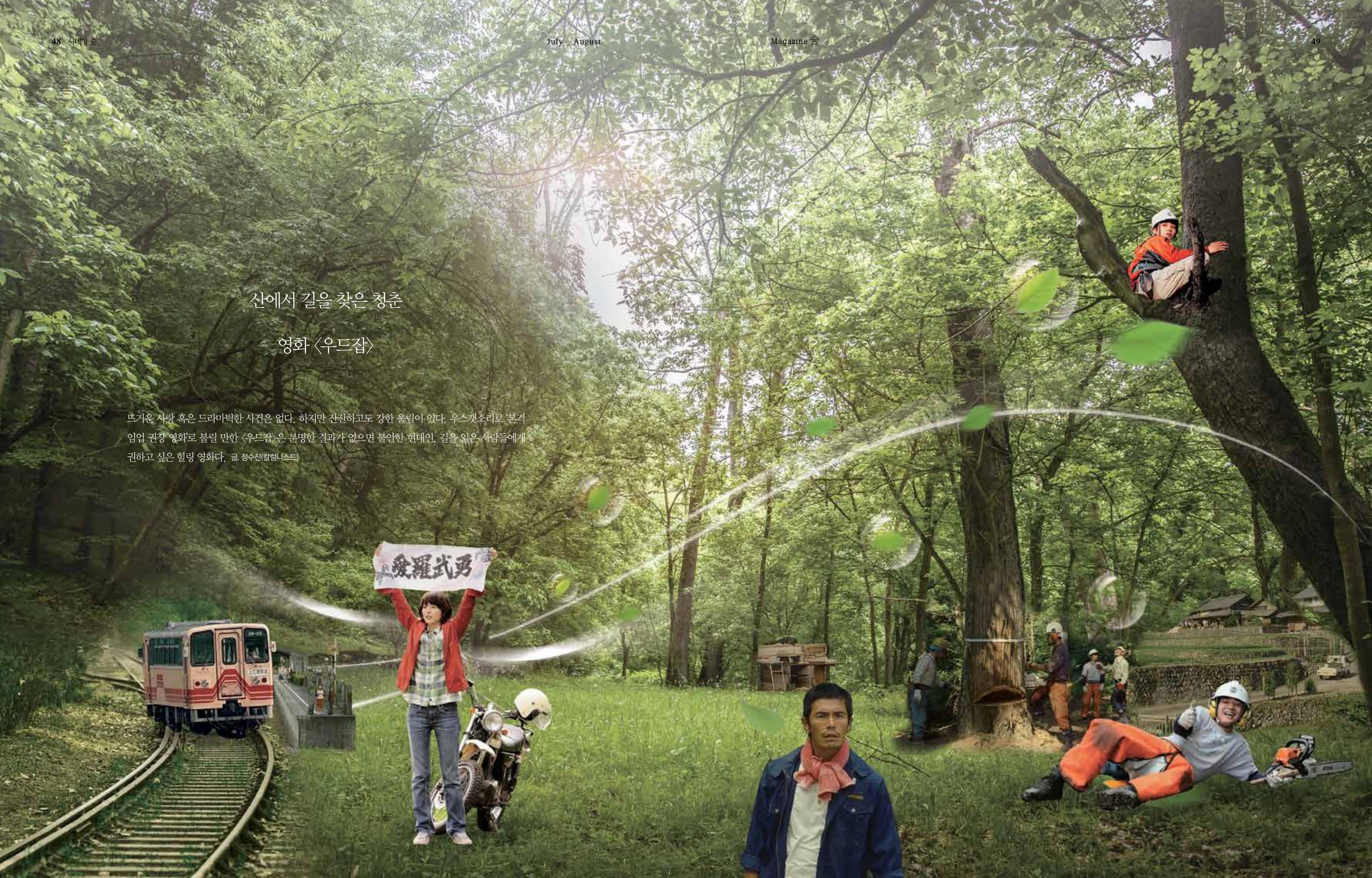
인트리에서 진행 중인 숲 친유 프로그램의 이름은 ‘나는 파랑새다’이다. 이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정서 치유, 자존감 회복, 공동체의식 함양, 가정의 가치 발전, 자연과의 교감 등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그동안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목재가공과 목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던 지역사회공헌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일이다. 인트리가 그동안 쌓아온 역량과 노하우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70평 남짓 넉넉히 조성된 목공소에서는 끊임없이 목재를 깎고, 닦고, 자르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어쩌면 그 공간이 인트리가 가진 열정과 꿈을 담아내기에는 패 비좁은 공간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더 할 나위 없지만, 앞으로 인트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나무 안에서 꿈을 꾸는 세상을 기대해본다. 숲



산에서 길을 찾은 청춘

영화 <우드잡>

뜨거운 사랑 혹은 드라마틱한 사건은 없다. 하지만 잔잔하고도 강한 울림이 있다. 우스갯소리로 '본격 임업 권장 영화'로 불릴 만한 <우드잡>은 분명한 결과가 없으면 불안한 현대인,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힐링 영화다. 글: 정수진(칼럼니스트)



어느 나라고 청춘은 푸르른 만큼 힘든 모양이다. 국내에 연애와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을 포기하는 'N포 세대'가 있다면, 일본에는 높은 청년 실업률로 좌절하여 희망도 의욕도 없이 무기력해진 '사토리 세대', 유럽에서는 1,000유로로 한 달을 사는 '1,000유로 세대'나 불안정한 고용으로 이케아 제품처럼 단기간에 쓰고 버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케아 세대'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국내외를 막론하고 세계 곳곳의 청춘들이 힘들다는 말이다. 물론 청춘은 어느 시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치열하고 고민하고 세파에 부딪쳐야 하는 존재이긴 하다. 특히 갓 사회에 나온 청춘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 일본영화 <우드잡>의 주인공 '히라노 유키' 또한 그렇다.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설상가상 사구던 여자친구에게도 이별 통보를 받은, 평범한 청년. 재수할 만큼 열의가 있지도 않던 그의 눈에 띈 것이 예쁜 홍보모델이 실린 산림관리 연수생 모집 전단지였다. 그렇게, 유키는 별 생각 없이 산림 연수생이 되기 위해 시골마을로 향한다.

예쁜 홍보모델에 반해 즉흥적으로 산림관리 연수생에 지원한 만큼, 유키에게 진지한 열의가 있을 리 만무하다. 도시청년에게 휴대폰도 터지지 않고 턱하면 살모사가 출몰하는 시골이 마음에 찰 리도 없다. 게다가 이런 곳에서 교육 1개월과 실습 11개월, 총 1년을 버텨야 한다. 결국 우리의 주인공은 가지치기와 전기톱으로 나무 자르는 법 등을 배우다 고작 며칠만에 아밤 탈출을 감행한다. 여행히 웬 헬멧 쓰고 오토바이 탄 젊은이가 기차역까지 그를 데려다 준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젊은이가 유키가 반했던 산림관리 연수생 모집 전단지의 홍보모델! "너 같은 애들은 어차피 취직해겠지 일주일도 못 버티고 뛰쳐나올 걸." 헬멧 벗은 그녀가 던진 암멸찬 한 마디에 유키는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가 제대로 교육을 마친다. 역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못 이루어낼 것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영화는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이다. 1개월의 교육은 말 그대로 교육. 유키는 첨첩산종의 가무사리 마을의 '나카무라 임업'에 배정되어 11개월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가무사리 마을에서 유키를 맞는 것은 산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지만 거칠기 짙이 없는 '요키'를 비롯해 대를 이어 임업에 종사 중인 조합원들은 어리비리한 유키가 못미덥다. 2 — 주인공 유키는 그야말로 첨첩산종의 산림관리 연수를 시작한다.

3, 4 — 1년의 연수 과정을 거치며 유키는 하루하루 산을 사랑하는 산사나이로 거듭난다.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야 하는. 그러다 유키에게 산 그리고 조합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생긴다. 무려 105년 전인 메이지 시대에 심어진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 팔고 돌아오는 길, 나무 한 그루가 무려 80만엔(약 780만 원)에 판매된 사실을 놀라워하던 유키가 조합원들에게 말한다. "나무 한 그루에 80만엔이라니! 이 산의 나무를 다 베어나면 양만장자가 되잖아요!" 이때 유키에게 답하는 작업반장의 말은 멋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징하다.

"그 나무를 다 베어 팔면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어쩌라고? 100년도 못 가서 대가 끊겨. 그래서 묘목을 계속 심어야 해. 이상한 일 같겠지만, 농부는 자신이 심은 채소의 맛을 보며 보람을 느낄 수 있지만 임업은 아니야. 우리가 한 일의 결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알 수 있어."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그 말에 담긴 울림은 상당하다. 실제로 영화에서 105년 된 거대한 나무가 베어져

넘어가는 장면은 별다른 액션 신 혹은 감정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느 명배우가 열연하는 장면 못지않게 보는 이를 몰입하게 만든다. 아마 단지 나무가 아니라 100년이 넘는 시간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리라. 산사나이들에 둘러싸여 나무를 심고, 나무를 자르고, 나무의 종자를 얻기 위해 수십 미터의 나무 위를 오르면서 유키는 하루하루 산을 사랑하는 산사나이로 거듭나게 된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슬로라이프 연구회'라는 회원들과 함께 찾아와 조합원들의 삶을 장난기 어린 모습으로 지켜보며 촬영할 때, 다혈질의 유키보다 먼저 화내며 그들을 쫓아내는 것도 유키다. 어느덧 그는 유키처럼 산을, 산을 사랑하는 마을사람들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타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48년 만에 열리는 마을의 축제에 참여하게 될 정도로, 유키는 가무사리 마을에 완벽히 적응한다(훈도시 차림의 남자들이 대거 등장하여 살짝 민망하지만 이 축제 장면은 상당히 유쾌하다).

<우드잡>은 미우라 시온의 소설 <가무사리 숲의 느긋한 나날>이 원작으로, 실제 작가의 외조부가 미에 현에서 임업에 종사하여, 어릴 적부터 100년 후 팔릴 나무를 기르는 것은 어떤 일일까 생각하며 소설을 구상했다고 한다. 거대하고도 푸르른 산과 숲, 자연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일까, 일본영화 특유의 감성일까, 영화 또한 큰 사건이 벌어지는 등 드라마틱한 전개는 없지만 잔잔한 가운데 자연스러운 웃음을 유발한다. 이는 <워터보이즈>, <스윙걸즈>, <해피 플라이트> 등의 전작에서 평범한 인물들의 유쾌한 웃음과 별랄한 성장담을 보여준 바 있는 야구치 시노부 감독의 능력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유키는 1년의 실습을 무사히 마치고 어떻게 되었냐고? 묘한 감정을 주고받던 나오기와는 어떻게 되느냐고? 야구치 시노부 감독의 전작들이 그렇듯 보는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반전은 없다. 그냥 직접 영화를 보자. 말이나 글로 설명할 수 없는, 산과 숲이 담은 푸르고 편안한, 신비한 분위기가 화면 곳곳에서 장면과 소리로 전달되니까. 잠시 길을 잃은 사람이라면, 가까운 뒷산에라도 가고 싶어지게 만드는 영화 <우드잡>이다. 숲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산림청 〈Magazine 숲〉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갑니다. 〈Magazine 숲〉을 읽고 난 후 인상 깊었던 기사에 대해 독자 엽서, 이메일(magazinesup@korea.kr)로 의견 보내주세요. 매 호 여섯 분의 독자 의견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2018년 5+6월호 독자 의견



이현지(인천시 서구)

유아숲지도사라는 직업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살펴 주셔서 무척 유익했습니다. 유아숲지도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자격증 정보와 양성기관 정보까지 자세히 담겨있어 읽자마자 바로 딸에게 알려줬답니다.



김보라(경기도 구리시)

막연히 '숲'하면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라 생각했는데, '가족맞춤 숲 활용법'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석(경기도 의정부시)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이 묘지 조성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라 '수목장림'에 대한 기사가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수목장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더 확대됐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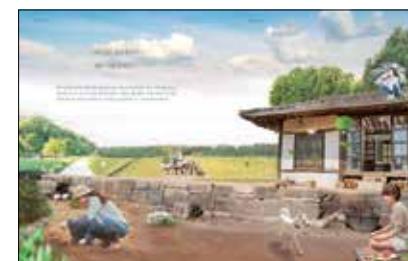
김정근(충북 청주시)

〈Magazine 숲〉은 여러 가지 시각을 통해 숲에 대해 접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 무척 좋습니다. 특히 '꽃이 되는 모든 과정이 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준 황경택 생태만화가의 인터뷰 기사를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김대현(경기도 평택시)

공정여행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는 왔지만 정작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왜 실천해야하는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여행이자, 이를 통해 내가 더 위안받고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공정여행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박성희(서울시 강북구)

직접 보지 못한 영화이지만 '시네마 숲'을 통해 <리틀 포레스트>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덕분에 지친 삶을 위로해주는 안식처인 숲의 의미, 나만의 작은 숲은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2018. 08. 10. FRI
- 08. 15. WED

제28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광화문 광장 [6일간]
개막식 | 2018. 08. 10. 금요일

지역 행사
세종시 8.15-16 | 수원시 8.03-05
충천군 7.28-29 | 원주군 8.10-12